

현실로서의 냉전과 한국 국제정치학의 형성*

- 조효원과 이용희의 냉전 국제정치론을 중심으로 -

육창준**

〈차 례〉

1. 들어가며
2. 현실주의로 바라본 냉전: 조효원의 『국제정치학』(1954)
3. 현실주의를 비판하는 현실 독해: 이용희의 『국제정치론』(1955)
4. 나가며

【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 국제정치학사 서술을 위한 시론으로 한국의 초창기 국제정치학자인 조효원과 이용희의 냉전 국제정치론을 다룬다. 지금까지 조효원은 유학파, 이용희는 국내파라는 매우 단순하고 불균형한 구도 속에서 비교되었다. 이 글은 두 학자 모두 냉전의 도래라는 국제정치적 질서 변동을 국제정치학이라는 새로운 지식 체계를 통해 포착했다고 해석한다. 조효원과 이용희는 미국에서 생산된 국제정치학 지식을 활용하면서 한국의 국제정치적 현실을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지식의 기원 추적에 기울어져 있는 한국적 국제정치학 논의는 지식의 기원을 한국만의 경험에서 도출해야 한다는 근본주의적 강박에 빠지기 쉽다. 이 글은 기존의 접근법과 달리 지식의 활용 측면에 주목하여 한국 국제정치학사 논의를 보다 역동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주제어] 냉전, 국제정치학, 국제정치학사, 조효원, 이용희

* 이 글은 2021년 10월 서강대학교 글로벌사회문화연구소가 주최한 “역사정치학의 키워드로 본 백년의 한국 정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초고를 다듬은 글이다. 토론을 맡아주신 홍철기 선생님과 익명의 심사위원 3인의 소중한 논평에 감사드린다. 지면의 제약으로 모든 논평을 반영하지 못했다. 앞으로 다른 연구를 통해 보완을 약속드린다.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 박사과정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한국 국제정치학사 서술을 위한 시론(試論)으로 1950년대 중반에 출간된 한국의 초창기 국제정치학 저서인 조효원(趙孝源, 1917~1977)의 『국제정치학』(1954)과 이용희(李用熙, 1917~1997)의 『국제정치원론』(1955)의 내용과 구성 체계를 비교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학사(學史)의 측면에서 한국 국제정치학에 접근한 연구는 매우 소략하다.¹⁾ 주로 개별 학교의 학과사, 한국국제정치학회의 학회사 정도의 논의가 간헐적으로 산개되어 있을 뿐이다.²⁾

특기할 만한 사실은 학사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적 국제정치학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³⁾ 기존의 논의를 통해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계보를 찾고 재구성하려는 일련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여전히 미국적 국제정치학과 한국적 국제정치학이 이분법적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는 1950년대 한국에서 한국인이 저술한 ‘유이(唯二)’한 국제정치학 저서인 조효원의 『국제정치학』과 이용희의 『국제정치원론』을 분석하는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⁴⁾ 미국 유학파인 조효원의 저서는 미국적이며 국내파인 이용

1) 한국 국제정치학사와 관련해서는 김용구, 『국제정치학사』, 『한국정치학회 50년사: 1953~2003』(한국정치학회 엮음, 한국정치학회, 2003. 최근의 논의로는 Jungmin Seo and Young Chul Cho, “The emergence and evolu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in postcolonial South Korea,”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0, 2021, pp.1~18.

2)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창립 50주년(2006)을 기념하여 출간된 하용출 엮음, 『한국 국제정치학의 발전과 전망』,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50년사』, 한국국제정치학회, 2006; 한국국제정치학회 창립 50주년(2006)을 기념한 특집 논문을 간행한 김형국·조윤영 엮음, 『현대 국제정치학과 한국』, 인간사랑, 2007.

3) 기존에 전개된 ‘한국적 국제정치학’ 관련 논의로는 김영명, 「한국적 국제정치 연구의 주요 사례와 바람직한 방향」, 『글로벌정치연구』 2권 2호, 한국의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09; 이철순, 「한국적 (국제)정치학’ 정립을 위한 담론 비평」, 『21세기 정치학회보』 22권 3호, 21세기정치학회, 2012.

4) 1950년대 한국에서 출간된 다른 국제정치학 저서로는 이원우(李元雨)가 번역한 일련의 책들이 있다. 이원우는 E. H. 카, 한스 모겐소, W. 프리드먼(Friedmann)의 책을 번역하여 소개했다. E. H. 카, 이원우 옮김, 『국제정치학개론: 위기의 20년』, 덕수출판사, 1955; W. 프리드먼, 이원우 옮김, 『국제정치론』, 신지사, 1956; E. H. 카, 이원우·이영희 옮김, 『20세기 국제정치사』, 신명문화사, 1957; 한스 모겐소, 이원우 옮김, 『국제정치와 미국외교정책』, 영창서관, 1957.

회의 저서는 한국적이라는, 매우 단순한 평가이다.⁵⁾ 무엇이 더 한국적 국제정치학이냐는 잣대로 당대 국제정치학의 현황을 바라본다면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문제의식을 배워나가야 한다는 매우 소박한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또 이와 같은 접근법을 통해서도 당대 사회과학자들이 해석하고자 노력했던 현실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없다.

이를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우회로로서 이 글은 전 지구적 보편인 미국적 국제정치학, 로컬적 지식으로서 한국적 국제정치학을 상정하는 방식을 피하고, 한국의 초창기 학계라는 장(場) 속에서 복수의 지식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⁶⁾ 즉 이 글은 당대 국제정치학이 어떤 지적 기원을 토대로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하는 전략보다는, 냉전기 한국의 맥락에서 국제정치학이 어떤 시대적 조건을 강하게 의식하면서 형성되었는지를 물을 것이다.

이 글에서 주로 다루어질 시대적 조건은 바로 냉전(冷戰)이다. 냉전이라는 전무후무한 새로운 국제 질서의 등장은 새로운 해석 틀을 요구했다. 본 연구는 조효원의 『국제정치학』과 이용희의 『국제정치원론』을 중심으로 이 저작들이 냉전이라는 당대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 글은 유헌과, 국내파라는 꼬리표를 붙여 해석의 폭을 좁히기보다는, 조효원과 이용희가 냉전의 도래를 한국적 조건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해석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⁷⁾

5)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창설한 이용희의 경우,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두 권의 개별 연구서가 출간되어 있다. 민병원·조인수 엮음, 『장소와 의미: 동주 이용희의 학문과 사상』, 연암서가, 2017;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엮음, 『한국 국제정치학, 미래 백 년의 설계』,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6) 물론 지식의 지구적 순환과 유통을 규명하는 연구도 중요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 지식의 제국적 순환과 유통의 양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지식의 지구적 순환 및 유통 양상은 한국 사회과학사 서술에 있어 기초가 되는 중요한 토대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보 여주고 있는 연구로는 기유정, 『해방 후 한국의 '지역학'과 제국의 학설: 이용희의 '권역'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8권 2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9; 홍정완, 『한국 사회과학의 기원: 이태올로기와 근대화의 이론 체계』, 역사비평사, 2021.

7) 이용희의 냉전 인식에 대해서는 남기정, 『이용희의 냉전 인식: 냉전과 분단 기원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20호,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17이 참고가 된다.

2. 현실주의로 바라본 냉전: 조효원의 『국제정치학』(1954)

38선 분단과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국제정치의 힘을 생생히 체험한 한국에서 국제정치학에 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6·25 사변, UN의 개입, 휴전 성립 등 국제정치의 작용을 체험함으로써 착잡한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내정치 현실까지도 국제정치라는 시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등장한 것이다.⁸⁾ 국제정치 및 국제정치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유학을 마치고 갓 귀국한 조효원이 드디어 첫 물꼬를 열었다. 조효원의 『국제정치학』은 한국인이 저술한 최초의 체계적인 국제정치학 저서였다.

조효원의 개인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조효원은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해주 고보를 거쳐, 1937년 4월 연희전문학교 상과에 입학했고, 1940년 3월에 졸업했다. 연전 졸업 후 조효원은 조선식산은행에서 근무했다. 해방 이후 조효원은 미 군정청에서 회계 계장을 맡기도 했다.⁹⁾ 또 이 시기 그는 한국인 유학생 파견을 위해 미국의 각 대학을 방문하고 귀국한 문장옥을 모시고 미국 유학과 관련한 행사를 개최했다.¹⁰⁾

이후 도미한 조효원은 1950년 2월 위튼버그대학(Wittenberg College) 경제학과를 입학 1년 만에 졸업하고, 1952년 3월 덴버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 논문(A history of U.S. and U.S.S.R. relations with Korea)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이미 석사학위 취득 전인 1951년 3월부터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으로 진학한 조효원은 하비 워커(Harvey Walker)의 지도를 받으며 1953년 11월 “The Evolution of the Functions of the Reconstruction Finance Corporation: A Study of the Growth and Death of a Federal Lending Agency”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했다.

1954년 귀국한 조효원은 연희대학교 정법대학 정치외교학과에서 국제정

8) 손제석, 「국제정치학의 연구 및 대학교육 경향」, 『한국정치학회보』 2권, 한국정치학회, 1967, 104쪽.

9) 「군정청사령」, 『공업신문』, 1948년 1월 15일, 1면.

10) 「미국 유학은 어떻게? 종전 후의 사정과 동태는?」, 『공업신문』, 1948년 7월 22일, 2면.

치학 강의를 맡았다. 국제정치학 강의를 준비하면서 조효원은 『국제정치학』을 내놓았다. 1954년 9월에 출간된 『국제정치학』의 「서문」에서 조효원은 이 책이 그 자신이 거처온 미국의 위튼버그대학, 덴버대학교와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교재로 연구하던 여러 참고 저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부분만을 체계화해 본 것”이라고 밝혔다.¹¹⁾ 실제로 조효원은 한국에서 출간된 국제정치학의 저서가 현재까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책이 한국의 최초의 국제정치학 저서이자 ‘첫 발디딤’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드러냈다.¹²⁾

『국제정치학』의 서술 체계에서 조효원이 강조한 것은 국제문제를 보편적으로 지배하는 원칙과 이 원칙을 현실에 반영한 강대국의 외교정책이었다. 그는 이와 같은 자신의 서술 전략을 ‘현실주의 수법(Realist Approach)’이라 명명했다.¹³⁾ 그렇다면 조효원의 ‘현실주의’는 당대의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을까.

조효원이 보기에 현재의 국제관계는 강대국과 약소국 모두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이자 엄연한 현실이었다. 이와 같은 보편적 현실 속에서 강대국은 자국의 국제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향상하기 위해, 또 세력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종속국이나 식민지는 질서의 현상타파와 기성 세력권의 반항과 투쟁을 추구했다. 이와 같은 국제관계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이를 지배하고 있는 법칙과 원리를 추출하는 학문이 바로 국제정치학이었다.¹⁴⁾

1) 조효원의 국력론

조효원은 국제정치학적 법칙의 핵심이 ‘힘(power)’에 있다 보았다.¹⁵⁾ 특히 조효원의 관심은 권력 구조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세력정치(power politics)’였다.¹⁶⁾ 이를 보여주기 위해 조효원은 현상 유지 정책, 제국주의, 고립정책

11) 조효원, 「저자 서문」, 『국제정치학』, 문종각, 1954.

12) 조효원, 「저자 서문」, 위의 책.

13) 조효원, 「저자 서문」, 위의 책.

14) 조효원, 위의 책, 1쪽.

15) 조효원, 위의 책, 2쪽.

또는 중립정책, 세력균형을 두루 소개하고 냉전 등의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여러 외교 정책적 테크닉(technique)을 다루었다. 그리고 이를 역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국제 열강의 실태와 그 외교정책의 역사를 책의 후반부에 첨부하면서 말미에 국제기구론을 배치했다. 이렇게 구성된 『국제정치학』의 목차는 아래와 같았다.

『국제정치학』의 목차¹⁷⁾

저자 서문

서설

제1편 민족, 국가, 국제사회

제2편 세력정치

제1장 국력의 기초(Hans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Elements of National Power 번역)

제2장 민족주의(Frederick Hertz, *Nationality in History and Politics* 축약 번역)

제3장 현상 유지 정책(Hans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Policy of the Status Quo 번역)

제4장 제국주의(Hans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Imperialism 번역)

제5장 고립정책과 중립정책(Strausz-Hupé and Possony, *International Relations*, Techniques of Foreign Policy 참고)

제6장 세력균형주의(Hans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16) 조효원, 위의 책, 4쪽. 이는 조효원의 독창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당대 미국에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을 정초한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의 의견이었다. 조효원은 『국제정치학』에서 모겐소의 저작, 특히 *Politics Among Nations*의 제2판(1954)을 상당 부분 번역하여 핵심 전거로 활용했다. 한국에 수용된 모겐소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최근 한 연구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내셔널 인터레스트론'이 1950년대 후반의 맥락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었는지를 논하고 있어 주목된다. 홍정완, 앞의 책, 274~290쪽.

17) 특히 제2편 세력정치의 경우 조효원이 참조한 것이 확실해 보이는 텍스트를 해당 목차 옆에 소개했다. '번역'은 거의 대부분을 전제한 경우를 뜻하고, '축약 번역'은 일부 내용을 전제한 경우, '참고'는 내용을 어느 정도 자신의 언어로 소개한 경우를 뜻한다.

for Power: Balance of Power 번역)

제7장 냉전과 그 테크닉(Strausz-Hupé and Possony, *International Relations,*

Techniques of Revolution and the Cold War 참고)

제3편 지난날의 열강

이탈리아/일본/독일/프랑스/러시아

제4편 오늘날의 열강

영국/소련/미국

제5편 안전보장과 국제조직(Hans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International Government 번역)

조효원은 오늘날 “각국 간에 부단히 작용되는 세력의 유지, 세력의 팽창, 나아가서는 세력의 단합, 협조 이 모든 것이 국가와 민족을 기반으로 하는 복리의 추구로서 하나의 불가분한 상호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파악했다.¹⁸⁾ 세력정치의 주체로 민족국가를 꼽은 것이다. 민족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관계는 1648년 베스트팔렌 평화회의를 통해 공인되었으며, 이후 근대 국제법과 이에 기초한 국가 간의 외교 관계가 출현했다.¹⁹⁾

여기에서 조효원은 국가 간 불평등한 힘의 배분 관계에 주목했다. 명분상으로는 주권 평등의 원칙이 공인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강대국 중심의 질서가 수립되었다. 강대국들은 타 국가와 비교해 힘이 월등하므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국제 정국(政局)을 조정할 수 있었다.

즉 강대국 간의 세력배합 관계가 각 시대 국제관계의 성격을 규정했으며, 여러 강대국 간의 상호 관계가 바로 세력정치였다.²⁰⁾ 이처럼 세력정치를 알기 위해서는 즉 그 시대의 강대국이 누구지를 알아야 했다. 조효원은 강대국과 약소국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국력(國力)을 제시했다. 특히 조효원은 한스 모젠소의 『국가 간의 정치』(*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18) 조효원, 앞의 책, 17쪽.

19) 조효원, 위의 책, 19쪽.

20) 조효원, 위의 책, 20쪽.

*Power and Peace*의 내용을 전거를 밝히지 않은 채, 발췌 번역하면서 국력의 요소를 상세히 소개한다. 모겐소의 원저에 나오는 국력의 요소는 크게 불변적 요소와 가변적 요소로 나뉘어 있었고, 그 서술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지리적 요소-자연 자원-공업 능력-군비-인구-국민성-국민의 사기-외교의 질-정부의 질).

조효원은 원저의 순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력의 시작으로 군비를 꼽는다. 그리고 국제정치의 최종 해결 수단은 바로 무력이라는 그 자신만의 해설을 덧붙였다.²¹⁾ 원저자자인 한스 모겐소의 서술이 군비와 더불어 군대의 양과 질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배분하는 능력이 국가의 국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조효원의 독창적인 해석이었다.²²⁾ 조효원은 모겐소의 주장보다 한층 더 나아간다. 오히려 “아무리 우세한 무기와 발달된 전술을 가졌다 하더라도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장된 군인과 후방 요원의 수가 많아야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²³⁾

국제정치의 힘의 관계를 논하면서 조효원은 비로소 현대 미국의 현실주의적 국제정치학의 권위자인 ‘모오겐도’를 언급한다. 즉 세력의 유지(to keep power), 세력의 확대(to increase power), 세력의 시위(to demonstrate power)가 세력정치의 핵심이며, 이는 외교정책으로 발현될 때 각각 현상 유지 정책, 제국주의 정책, 위신 정책으로 발현되었다.²⁴⁾ 그리고 이에 따라 조효원은 제2편(세력정치) 제3장에서 현상 유지 정책을, 제4장에서는 제국주의 정책을 다루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조효원이 모겐소가 언급한 ‘세력의 시위’ 정책을 전혀 소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국력을 논할 때 물리적인 군사력을 강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효원은 비가시적인 힘을 중시하지 않았다. 조효원이 더 천착한 것은 ‘외교정책의 테크닉’이었다. 마치 군사전략가가 전장에서 적군을 격멸하기 위하여 때와 장소 및 전황에 따라 각종의 전술을 연구하듯이

21) 조효원, 위의 책, 21쪽.

22) Hans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Alfred A. Knopf, 1954, pp.112~113.

23) 조효원, 앞의 책, 23쪽.

24) 조효원, 위의 책, 70~71쪽.

외교정책도 정세에 관한 명철한 분석, 고찰 및 시간적 고려하에 행사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²⁵⁾

이 과정에서 조효원이 참조한 책은 한스 모겐소와 더불어 동시대에 활동하던 현실주의 학자인 스트라우스-휘페와 포소니가 함께 저술한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 1951)였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조효원은 자신만의 해석을 덧붙였다. 외교정책의 테크닉은 “시간과 국제적 정세”²⁶⁾에 따라서 변동하는 법이며 “각국의 외교정책이 독립정책으로부터 간섭정책으로 돌변하며 자국의 이익을 작량(酌量)하고, 금일의 중립정책이 내일의 협조정책으로 바뀌는” 시대가 현대의 모습이었다.²⁷⁾

조효원은 이제 독립정책과 중립정책을 ‘구식’이라는 이유에서 비판했다. 독립정책과 중립정책의 추구는 현대 국제 질서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이기적 행위였다. 미국이 20세기 초 독립정책을 포기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국제정치에서는 세계와 동떨어진 독립정책이나 중립정책을 펴기는 어려울 것이었다.²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조효원에게 냉전기에 등장한 ‘제3세력’은 언젠가 냉전적 구도로 포섭되어 사라질 존재들에 불과했다. 아랍 연맹국과 인도 등이 주도하는 제3세력은 자국의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데올로기를 무시해 가면서 유리한 편을 추종하려고 가늠하고 있는 위험한 존재일 따름이었다. 요(要)는 미국과 소련 중 어느 진영이 먼저 성공적인 간섭을 통하여 이 세력을 흡수하느냐에 있었다.²⁹⁾ 이처럼 조효원이 생각하는 현실의 국제정치에서는 ‘진공’ 상태가 허용될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은 간섭과 협조정책이었다.

25) 조효원, 위의 책, 103쪽.

26) 조효원, 위의 책, 104쪽.

27) 조효원, 위의 책, 104쪽.

28) 조효원, 위의 책, 121쪽.

29) 조효원, 위의 책, 158~159쪽.

2) 조효원의 냉전론

조효원은 『국제정치학』에서 냉전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월터 리프만(Walter Lippmann)의 냉전 정의를 빌리며 조효원은 냉전을 “선전과 침투, 협력과 간접적인 경제적 군사적 압력으로 싸우는 전쟁”이라 보았다.³⁰⁾ 그는 냉전에 있어 외교와 이데올로기적 대결이 격화되는 것을 두고 역설적으로 양진영의 “극히 정확한 세력의 균형”에 놓여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즉 미국과 소련이라는 행위자의 특수성보다는 국제정치적 세력의 균형적 분포 상황이 현재의 냉전을 낳았다. “양방의 세력은 예누리 없는 평형상태에 놓여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양방의 세력 간의 약간의 우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일방이 전쟁에서 승리를 획득할 자신을 가질 정도로는 우세하지 못한 것만은 확실했다.”³¹⁾ 그가 보기에 냉전기에 국가들이 택할 수 있는 수단은 정치/경제적 간섭, 선전, 외교전이였다.³²⁾ 국가의 안전보장을 확보키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력의 증강이지만, 이는 실제에 있어서 수 개의 강국에만 가능한 사실이며 금일 70여 개 국가의 대부분은 지리적인 또는 인구 및 자연 자원의 제약으로 고립한 채로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기는 곤란한 형편에 있었다. 따라서 수 개국이 동맹 혹은 협정의 방법으로 서로 협조하여 공격 혹은 방어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여러 가지 불안하고 불확정한 방편이였다.³³⁾

그렇다면 약소국의 입장에서 택할 수 있는 대안은 강대국의 정치/경제적 간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냉전은 불간섭이 존재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시기의 간섭이 피간섭국의 자주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냉전 시기의 간섭은 어디까지나 제국(諸國)의 평등권에 입각한 쌍방적인 것으로 해석되였다. 냉전 시기의 간섭은 약소국을 강대국의 막하(幕下)로서 다루지 않고, 그들을 강대국의 전우로

30) 조효원, 위의 책, 148쪽.

31) 조효원, 위의 책, 149쪽.

32) 조효원, 위의 책, 150쪽.

33) 조효원, 위의 책, 402쪽.

서 다루며 약소국을 결속시킨다는 목적을 지녔다.³⁴⁾

『국제정치학』에서 표명된 조효원의 현실주의적 수법이 주로 이론적 차원의 논의와 서유럽의 사례를 주로 다루고 있었다면, 이를 당시 한국이 놓여있었던 아시아적 현실에 맞게 적용한 작업물이 바로 다음 해인 1955년에 출간된 『아세아정치론』이다. 이 책 역시 조효원이 미국의 위튼버그대학, 덴버대학교와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아시아정치론’, ‘극동정치론’, ‘미소 극동 외교정책’, ‘중국’, ‘일본’, ‘인도’ 등등의 제 강좌에서 연구하던 참고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수집한 것이었다.³⁵⁾

조효원은 “아시아의 어떤 지도자들이 동서 양 진영 간에 중간노선을 보지(保持)함이 마치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가장 현명한 정책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나 만약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날에는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³⁶⁾고 쓰면서 이 책을 저술한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밝혔다. 일반적으로 아시아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비동맹, 중립 노선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조효원의 논리는 아시아 민족주의의 대세를 한국적 입장에서 비판하려는 시도였다.

이 책에서 그는 현대 구미와 아시아의 상황을 논한다. 구미가 아시아 없이 살 수 없는 이상, 구미 그 자신을 위해서도 아시아 민족주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구미가 아시아의 민족주의를 바르게 이해함이 없이 아시아에 임한다면 그에 대한 아시아의 반발은 아시아의 민족주의 그 자체를 기형적인 것으로 이탈시키고 그 반작용은 또 구미의 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한층 어지럽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었다.³⁷⁾

조효원은 민족주의가 “민족이 그 원하는 바대로 살려는 노력”이라 정의하면서 산다는 것의 의미를 풀어낸다. 사는 것은 주체와 객체의 모순 없는 마찰 없는 조화와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객체 측에서 경제적 착취나 정치적 탄압, 문화적 파괴를 가하면 주체 측은 고통을 받으며 모순과 마

34) 조효원, 위의 책, 152~153쪽.

35) 조효원, 『아세아정치론』, 문종각, 1955, 1쪽.

36) 조효원, 위의 책, 1쪽.

37) 조효원, 위의 책, 18~19쪽.

찰이 발생한다. 민족주의는 이와 같은 객체적 조건을 배제하려는 주체 측의 운동이었다. 그러나 조효원은 주체만의 운동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세계 대세의 변화와 같은 객체적 조건으로부터 주체 역시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세계 대세에 순응하고 나아가 그 선두에 섬으로써 주체 측의 변화를 이루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았다.³⁸⁾

여기에서 세계 대세의 변화는 냉전의 도래를 의미했다. 『아세아정치론』은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 각 국가들이 세계 대세의 변화에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조효원의 관점에서 평가한 책이었다. 조효원은 이 책에서 아시아 각 국가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정보는 모두 로렌스 로신거(Lawrence K. Rosinger)가 대표 집필한 *The State of Asia: A Contemporary Survey*(1951)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었다.³⁹⁾ 조효원은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아세아정치론』을 자기식으로 재구성한다.

그는 전후 아시아에서 반공 아시아 국가들의 동맹을 규합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서술 전략은 『아세아정치론』 곳곳에 녹아있다. 먼저 「인도지나」편을 보자. 이 장은 *The State of Asia*에서 엘런 해머(Ellen Hammer)가 집필한 인도차이나의 요약이다. 대부분의 알개는 엘런 해머의 논지를 따라가지만 1954년 제네바 회담 이후의 내용은 조효원이 가필했다. 여기에서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전역을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로 식민지주의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민족주의를 꼽았다.

특히 인도의 네루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민족주의 세력은 세계적으로 소위 제3세력을 형성하여 공산 진영과 민주 진영 사이에서 중립주의를 선언하면서 양대 진영의 공존을 주장했다.⁴⁰⁾ 그러나 네루가 부르짖고 있는 민족주의는 공산 침략자들의 활동을 북돋고 있었다. 아시아의 민족주의가 유럽의

38) 조효원, 위의 책, 19쪽.

39) 이 책은 미국이 극동 국가들을 냉전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상황을 비판하고, 아시아에서 실제로 무엇이 벌어지고 있으며, 전후 아시아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집필되었다는 점에서 냉전보다는 아시아 민족주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 책에 가까웠다. Lawrence K. Rosinger et al., *The State of Asia: A Contemporary Survey*, Alfred A. Knopf, 1951, p.vi.

40) 조효원, 『아세아정치론』, 74쪽.

민족주의(제국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대두한 것이라고 본다면, 조효원은 네루식의 민족주의 노선이 소련의 아시아 진출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⁴¹⁾

이처럼 조효원에게 아시아 국가들을 판별하는 기준은 소련을 비판하고, 자유 진영에 포섭되었는지 아니냐에 있었다. 『필리핀』편을 작성하며 조효원은 1954년 9월 8일 마닐라에서 정식으로 조인된 동남아세아방위기구(SEATO)의 구조와 내용을 검토하여 필리핀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동남아시아 국제정세를 논했다.⁴²⁾ 반면 비동맹 노선을 표방한 버마를 두고는 버마가 공산주의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으며 만약 그들이 공산화한다면 수십 년을 두고 피로써 투쟁한 대가는 오직 새로운 제국주의에 의한 착취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⁴³⁾

SEATO는 “적색 액체를 막기 위한” 제방으로 표상되었다.⁴⁴⁾ 그러나 이 제방에는 중립과 공존을 내세우며 소련으로 기울 수 있는 사벽(砂壁)이 포함되어 SEATO의 제방은 그 자체의 강도가 세지 못했다. 그렇기에 동북아시아의 아국(한국)과 대만이 중심이 되는 또 하나의 적색 액체를 막는 동북아시아방위기구라는 제방이 구성되어야 SEATO 제방은 이 새로운 제방과 합작하여 태평양방위조약기구(PATO)란 더 큰 제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조효원은 판단했다.⁴⁵⁾

즉 정리하자면 조효원은 자신이 미국에서 경험한 여러 지식을 조합하여, 냉전기 아시아에서 한국이 지향해나가야 할 외교 노선을 모색했다. 그는 단순히 미국 국제정치학의 ‘수입상’이 아니라 약소국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외교 노선을 나름대로 구상했다. 조효원은 미국과 소련의 전 지구적 대립을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 중심의 권력 투쟁으로 좁게 해석했다. 원자폭탄의 발명과 이를 독점하고 있는 미국, 소련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와 같은 현실은 쉽

41) 조효원, 위의 책, 19쪽.

42) 조효원, 위의 책, 189쪽.

43) 조효원, 위의 책, 151쪽.

44) 조효원, 위의 책, 192쪽.

45) 조효원, 위의 책, 192쪽.

사리 바뀌지 않는 하나의 구조에 가까웠다. 그 점에서 약소국 한국의 관점에서 가능한 외교적 선택지는 세계의 대세를 파악하고, 강대국의 개입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며 그 안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뿐이었다. 이는 비동맹, 중립 노선으로 일탈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민족주의 노선과 달리, ‘정도’(正道)의 민족주의가 취해야 하는 현실주의 노선이었다.

3. 현실주의를 비판하는 현실 독해: 이용희의 『국제정치원론』(1955)

조효원과 마찬가지로 1917년생인 이용희는 1936년 4월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했고, 1940년 4월에 졸업했다. 졸업 후 이용희는 만주로 활동 반경을 넓혔다. 1945년까지 이어진 만주 생활을 통해 이용희는 만주국의 현실, 당대 국제정치에 관한 관심을 보였으며 국제정세를 알기 위한 목적에서 국제정치학 서적을 초보적으로나마 읽기 시작했다.⁴⁶⁾ 미국에서 학부-대학원 과정을 통해 미국 사회과학을 직접 경험한 조효원과 달리 이용희는 독학으로 국제정세의 변동에 관심을 지녔으며, 이 경험을 살려 해방 직후의 한국에서 국제정치 평론가로 활약했다. 서울 문리대에서 국제정치학 강좌를 맡았던 이용희는 한국전쟁 기간 중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활동을 하며 인연을 맺은 미군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당대 미국에서 발간된 여러 국제정치학 학술지와 학술서를 광범위하게 섭렵하면서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나갔다.⁴⁷⁾

이를 통해 형성된 이용희의 국제정치론은 1955년 9월 출간된 『국제정치원론』(國際政治原論)으로 집약되어 표현된다. 우선 『국제정치원론』 「서문」에서 이용희는 자신이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가 두 가지 있었다고 말한다.

46) 이용희의 지적 성장에 대해서는 강동국, 「국제정치학자 이용희의 탄생」, 『한국 국제정치학, 미래 백 년의 설계』(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엮음),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47) 이용희가 섭렵한 문헌에 대한 목록으로는 「정치학 일반 참고문헌」, 『서울대 정치학보』 3호,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정치학과, 1958, 181~203쪽. 이 문헌은 미국 도서 167종, 영국 도서 86종, 프랑스 도서 53종, 캐나다 도서 40종, 총 346권을 소개하고 있다.

하나는 “먼저 동양 사회를 지배하게 된 서구형 정치 양식은 도대체 어떤 것이며 또 오래 세계를 지배하였던 구미 정치의 국제정치 권력으로서의 성격은 과연 무엇이나는 것”이었다.⁴⁸⁾ 이용희의 문제의식은 현재의 국제정치의 양상을 서구 권력의 결과물로서 바라본다는 특색이 있었다. 조효원이 한국에 ‘국제정치학’이 부재함을 지적하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미국의 지식을 최대한 빠르게 소개하려고 했다면, 이용희는 세계를 지배한 구미 정치의 권력으로서의 속성을 문제의 시야에 넣고 분석하고자 했다. 이용희의 지적 목표는 유럽정치 및 그것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의 연구를 통해 우리 겨레가 왜 이렇게도 취약한지, “우리의 현상을 진실로 이해하는 것”이었다.⁴⁹⁾

이용희가 품은 또 다른 의문은 과연 종전의 일반(一般)정치학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점이었다.⁵⁰⁾ 이용희는 과거에 자신이 공부를 위해 읽었던 일반정치학이 유형적으로 국가 현상 그리고 정치기능을 탐구하고 있지만, 그 유형의 본보기는 유럽의 입헌 민주정치라는 점을 지적했다. 즉 일반정치학이 가정하고 있는 현실은 지극히 유럽적 현실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이를 바로 참고하고 함의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았다. 그렇기에 오히려 이용희는 서양의 일반정치학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 제기가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⁵¹⁾

그는 일반정치학의 유형의 본(本)이 되는 유럽의 민주주의는 유럽적 번영 위에 입각한 것이며, 그 유럽적 번영은 현실적으로 후진 지역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역사적으로 국제적 불평등 위에 수립된 민주정체와 그것을 유형화한 정치학을, 국제적인 피지배 지역의 학도(學徒)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공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⁵²⁾

이와 같은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대안으로 이용희가 제시한 것은 바로 ‘장

48) 이용희(이동주), 『동주 이용희 전집 1: 국제정치원론』, 연암서가, 2017[1955], 4쪽.

49) 이용희, 위의 책, 4쪽.

50) 이용희, 위의 책, 5쪽.

51) 이용희, 위의 책, 5쪽.

52) 이용희, 위의 책, 2쪽.

소(場所)의 논리'였다. 장소의 논리는 “정치학이 성취한 일반 유형 그리고 서양의 정치 가치가, 개별적 지역에 있어서는 어떠한 변이를 일으키고 또 어떠한 ‘권위’적 역할을 하는지를 탐문하는 것”이었다. 장소의 논리의 핵심은 서양의 정치 가치가 일종의 지적 ‘권위’로서 작동하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이용희는 구미적 공간에서 태어난 ‘정치학’이 우리에게도 보편타당한 ‘일반’ 정치학이 된 데에는 결국 유럽의 국제정치적 힘이 우월했기 때문이라고 날카롭게 진단했다.⁵³⁾

즉 ‘일반’ 정치학은 그 자체로 일반적인 정치학이 아니라, 사실상 강대국의 정치 관념 및 가치를 일반화하는 효과를 지녔다는 점에서 ‘일반화된’ 정치학이었다.⁵⁴⁾ 이용희는 지금 일반정치학으로서 통용되는 국내정치학이 사실은 구미적 장소를 계기로 하는 소이(所以)를 우선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의 유럽적 전통이 지닌 근원적이면 역사적인 성격을 석출하여야 한다고 파악했다. 이는 한국의 경우처럼 국제정치적 환경과 여건이 국내정치에 큰 영향을 주는 조건에서는 더욱 필요한 시각이었다.⁵⁵⁾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한 『국제정치원론』의 목차는 다음과 같았다.

『국제정치원론』의 목차

서문

제1부 서론

제1장 국제정치 현상

제2장 국제정치학의 성립

제3장 근대국가의 이해

제4장 현대국가에의 지향

제2부 국제정치의 정태

53) 이용희, 위의 책, 3쪽.

54) 이용희, 위의 책, 3쪽.

55) 이용희, 위의 책, 6쪽.

- 제5장 국제법적 질서
- 제6장 외교제도론
- 제7장 세력균형과 집단안전보장
- 제3부 국제정치 동태
 - 제8장 힘(권력)
 - 제9장 외교정책과 그 실시(1)
 - 제10장 외교정책과 그 실시(2)
- 제4부 결어

1) 이용희의 ‘내’ 국가론

‘장소의 논리’에 입각한 이용희의 저서는 조효원의 국제정치학 체계와는 판이했다. 먼저 이용희의 『국제정치원론』은 국제정치 현상을 논하면서 시작한다. 조효원의 『국제정치학』이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서양사에서 민족이 등장하고, 근대국가를 이루고, 국제사회가 형성된 이야기를 시작하고, 국제정치의 핵심을 국제사회의 행위자인 근대민족국가, 그 중에서도 강대국의 ‘세력(권력)정치’로 초점을 맞추고 설명했다면, 이용희에게 국제정치 현상은 이처럼 무색무취한 개념이 아니었다. 국제정치를 경험하는 주체인 국가는 결국에는 ‘내 국가’라는 점에서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개념이었다. 국제정치(國際政治)는 말 그대로 ‘국가 간’의 정치 현상을 의미하지만, 국제정치 안에서 ‘내’ 국가나 ‘남’ 국가의 가치는 완전히 같을 수 없었다.⁵⁶⁾

즉 이용희에게 ‘국가’는 객관적 사실인 동시에 국제정치에 있어서 국가는 개성적 가치를 지닌 상징이며, 개개인의 사회생(社會生)을 집단화하는 가치 표지(標識)였다.⁵⁷⁾ 누구나 예외 없이 경험한다는 점에서 국제정치적 상황은 ‘객관적’이었지만, 국제정치는 동시에 ‘내’ 나라라는 프리즘을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는 ‘주관적’ 사실이었다. 조효원이 국제정치를 보편적 현상으로 설명

56) 이용희, 위의 책, 14쪽.

57) 이용희, 위의 책, 14~15쪽.

했다면 이용희는 객관과 주관의 문제의식을 강조했다. 즉 국제정치 현상은 주관적 사실이 부단히 다른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객관화하는 동시에 객관적 사실이 끊임없이 주관화하는 이중의 과정이었다.⁵⁸⁾

국제정치의 단위로서 국가 일반은 현실적으로는 한낱 허구에 가까웠으며 국제정치의 국가는 어디까지 ‘나’의 국가라는 주체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⁵⁹⁾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국제정치는 우선 ‘내’ 나라의 목적, 의사, 상황과의 연관 하에 파악되어야 했다.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모든 국가의 대외목적은 ‘내’ 나라의 가치관을 본보기로 하여 해석하고 계획하고 ‘남’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이었다.⁶⁰⁾

국제정치적으로 논의되는 보편적 가치는 사실상 개별 국가의 특수한 가치가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국제정의라 하여도 세계평화라 하여도 결국 ‘내’ 나라의 해석에 의한 정의, 평화에 불과하다. 국제적 경제 질서 또는 국제법 질서라 하여도 ‘내’ 나라에 유리하거나 이해되는 질서에 불과하다. 인류사회의 번영이라 할지라도 ‘내’ 나라의 번영이라는 이론에서 출발한다. 주의, 주장, 제도, 문물의 국제화도 따져보면 ‘내’ 나라의 틀이러야 된다는 것이 심저(心底)에 있다.”⁶¹⁾

그런 의미에서 이용희에게 힘은 일국의 목적을 보편화하고 일반화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었다.⁶²⁾ 힘의 관계가 비교적 고정되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평화가 유지되며, 힘의 관계가 설정되지 못하면 전쟁이 발발하여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해야만 했다.⁶³⁾ 그렇기에 이용희의 국제정치에서는 전쟁 상태가 아니라면, 일정한 질서가 반드시 존재하고 그 질서의 틀 안에서 ‘힘’이 작동하고 있었다. 이용희에게는 군사력이 강조되는 전쟁 상황보다는 질서가 유지되는 양상이 더 중요한 관심사였다.

58) 이용희, 위의 책, 15쪽.

59) 이용희, 위의 책, 15쪽.

60) 이용희, 위의 책, 16쪽.

61) 이용희, 위의 책, 16쪽.

62) 이용희, 위의 책, 17쪽.

63) 이용희, 위의 책, 20쪽.

‘동적’인 내 나라적 권력정치는 ‘정적’인 객관적 제도화의 정치와 함께 작동했다. 국제정치는 단순히 힘만이 노골적으로 작동하고 ‘내’ 나라의 의사가 관철할 수 있는 터가 아니었다. 동시에 국제정치는 제도화된 질서만이 존재하고 그 위에서만 평화가 이룩된다는 정지(靜止)의 세계도 아니었다. 비유하자면 ‘힘’의 동과 ‘질서’의 정이 양 개의 좌축이 되어 그 사이에서 부단히 전동하는 좌표와 같은 것이었다.⁶⁴⁾ 이론상으로 볼 때 힘이 국제정치의 출발점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결국 당대 국제 질서의 양태가 힘의 모습을 결정했다.⁶⁵⁾ 순수한 힘 그 자체가 ‘힘’의 전부라면 이는 당대 국제 질서가 그러한 힘을 최우선으로 꼽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이용희의 관찰은 단순한 힘을 중시하는, 기존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이론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고 있었다. 이용희는 현재 영미 국제정치학의 주류가 권력정치의 이론, 즉 현실주의라 파악한다.⁶⁶⁾ 그러나 그는 영국 국제정치학과 미국 국제정치학의 권력 개념을 구분해서 보고 있었다. 영국 국제정치학에서 권력은 현실적으로 객관화된 양태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영국 국제정치학의 권력은 국제사회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것’에 가까웠다.⁶⁷⁾ 반면 미국 국제정치학에서 권력은 주체의 심리에 주목하고 있었다.⁶⁸⁾ 미국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정치는 객관화된 세계의 제도, 질서, 기구라기보다는 순수한 주체들의 체계였다.⁶⁹⁾ 이용희의 권력론은 미국 국제정치학과 영국 국제정치학 사이 일종의 종합이었다. 그는 힘의 동태(動態)와 질서의 정태(靜態)를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체의 심리에 주목하는 미국 국제정치학은 힘의 동태를 밝히는 데 유용하고, 질서의 정태를 밝히는 데에는 영국 국제정치학이 일정한 의미를 지닐 수 있었다. 이는 『국제정치원론』을 이용희가 국제정치의 정태와 동태로 구성한 이유이기도 했다.

64) 이용희, 위의 책, 24쪽.

65) 이용희, 위의 책, 25쪽.

66) 이용희, 위의 책, 38쪽.

67) 이용희, 위의 책, 39쪽.

68) 이용희, 위의 책, 40쪽.

69) 이용희, 위의 책, 40쪽.

2) 이용희의 냉전론

이용희는 현대의 국제정치적 상황의 특징으로 압도적인 국력을 지닌 미국과 소련의 등장을 꼽았다.

근대국가는 본래 비등한 실력을 가진 수 개국의 존재를 전제로 하였다. 소세력의 규합에 의한 대세력 대항은 있었으나 그러나 장기로 볼 때에는 압도적 세력이 없다는 것이 근대유럽정치사의 특색이었다. 현대에 있어서는 나라 사이의 실력의 차가 너무나 현격하여 다수 근대국가의 경쟁적 공존이라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곧 미국, 소련 양 대국의 실력은 거의 다른 나라로 하여금 경쟁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⁷⁰⁾

그렇기에 이용희는 근대국가적 논리에 입각한 기존의 국제정치학으로는 냉전을 쉬이 설명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현대 국제정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불균등에 주목해야 했다. 이 불균등은 국토, 인구, 자원, 기술력과 자본력과 노동력, 국민의 부에서 모두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었다. 세계의 높은 생산력을 대표하는 미국, 소련 양 세력 사이에는 동북아시아로부터 동남아 그리고 중근동을 거쳐 중동 유럽에 이르는 마찰지대가 존재했고 이 지대에는 대체로 빈국(곧 약국)들이 군집하여 있으며, 특히 아시아, 중근동에는 극빈국이 즐비했다.⁷¹⁾

이와 같은 물질적 조건을 배경으로 두고 현대 세계는 특히 제2차 대전을 통해 정치사적인 변혁을 겪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과 동유럽의 위성국가 그리고 극동의 중공 정권의 성립으로 방대한 공산 지역이 출현하여 세계 시장은 사실상 폐쇄 상태에 이르렀다. 국제연합과 국제협조기구들은 양대 진영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형편으로 인해 사실상 공개 정치투쟁의 장이자, 냉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⁷²⁾

70) 이용희, 위의 책, 82쪽.

71) 이용희, 위의 책, 95쪽.

조효원은 전 지구적 현상이었던 냉전을 두고 개별 지역을 냉전적 논리로 분석하고 그 처방을 제시했다. 아시아 민족주의를 논했지만, 조효원의 최종 귀결점은 결국 진영 논리였다. 반면 이용희는 냉전이 보편적 현상이지만 각 지역에 나타나는 특수 상황에 주목했다. 유럽, 미 대륙,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은 각기 역사가 다르고 경제 형편이 같지 않고, 정치문화의 전통이 하나가 아니어서 따라서 국제정치상의 역할과 의미와 반응도 서로 다른 특색이 있었다. 그렇기에 국제정치는 단순히 세계 대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상호 관계의 총화를 뜻했다. 각 지역의 특수사정이 국제정치에 ‘살’이고 역사의 대세는 국제정치에 ‘뼈’였다.⁷³⁾

이용희는 아시아의 정치 대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북부의 공산 세력과 한국, 필리핀, 대만,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등을 현지 세력으로 하는 자유 세력과의 대치”를 중심으로 하며 인도, 실론, 버마, 인도네시아 등 제3세력이 그사이에 개재(介在)했다.⁷⁴⁾ 일본은 대체로 친미적으로 제3세력에 대해서도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 지역은 중근동 지역과 같이 세계 양대 세력의 접촉지대가 되어 있어서 한반도의 양단, 베트남의 분단, 그리고 중공 대 대만 사태의 불안정은 심한 긴장을 조성했다.⁷⁵⁾ 유럽, 중근동과 마찬가지로 아시아는 미국의 관점에서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긴요한 싸움터였다.⁷⁶⁾

이와 같은 관찰은 조효원과 일견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조효원과 달리 이용희는 냉전(현대)기에 국제정치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았다. 이용희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이 서로 군소국을 좌우에 거느리고 각기 그 영향 지역을 넓히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상황이 옛 세력균형의 상태와 흡사한 구석도 있다고 분석했다.⁷⁷⁾ 그러나 세력균형이 근대적 주

72) 이용희, 위의 책, 102~103쪽.

73) 이용희, 위의 책, 103쪽.

74) 이용희, 위의 책, 110~111쪽.

75) 이용희, 위의 책, 111쪽.

76) 이용희, 위의 책, 112쪽.

77) 이용희, 위의 책, 157쪽.

권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현재의 국제 질서는 공산주의라는 국제정치적 권위에 귀의하는 국제정치 질서가 출현했다는 점에서 독특한 측면이 있었다.⁷⁸⁾

진영 내에서 위계적인 양상을 보이는 공산 진영의 등장 이후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이라는 두 개의 국제 질서가 수립되었다.⁷⁹⁾ 이용희는 자유 세계와 공산 세계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치관, 이해관계 등의 근본 모순에서 냉전이 연원한다고 보았다.⁸⁰⁾ 하지만 그는 단순히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냉전을 설명하지 않았다. 조효원이 양 진영의 세력균형을 중심으로 냉전을 이해했다면, 이용희는 양 진영이 개별 진영 내에서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양상에 주목했다.

즉 냉전의 핵심은 과거 국제정치의 애토믹(atomic)한 구조가 제2차 대전을 계기로 하여 깨어져 나가는 데 있었다. 이는 근대국가가 현대국가로 넘어가는 과정과 겹쳤고, 강제력 측면에서 매우 막강한 양대 초강대국이 출현했다.⁸¹⁾ 양 진영의 근본적인 정략은 안으로는 강제력의 통합적 강령도 및 여론의 통합적 밀도를 높이면서 한편 타 진영의 통합과 강령도를 약화시키는 데 주력하는 것이었다.⁸²⁾

조효원이 소련의 ‘제국주의’와 대비하여 냉전기 자유 진영의 간섭정책을 긍정했다면, 이용희는 자유권의 단결이 자발적이면서 합의적인 공동의식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지는 않았다.⁸³⁾ 각국 외교정책은 등위에서 이룩된 결합이 아니라 초강대국의 정책에 의해 부등위(不等位)하게 통합되었다.⁸⁴⁾ 하지만 역설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진영 논리를 통해 “같은 시장, 같은 정치체, 같은 이념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체가 등장했다.⁸⁵⁾ 이용희는 현대 국

78) 이용희, 위의 책, 158쪽.

79) 이용희, 위의 책, 159쪽.

80) 이용희, 위의 책, 342쪽.

81) 이용희, 위의 책, 342쪽.

82) 이용희, 위의 책, 343쪽.

83) 이용희, 위의 책, 349쪽.

84) 이용희, 위의 책, 349쪽.

85) 이용희, 위의 책, 118쪽.

가의 거시적 방향은 역사적 정치집단(국민국가)을 하위단위로 하고, 그 위에 여러 개의 하위 정치집단을 포함하는 중위의 지역적 정치권이 서고, 또 그 위에 세계기구가 서는 계층적 정치 세계가 출현할 것으로 전망했다.⁸⁶⁾

즉 냉전 국제정치는 이용희가 보기에 크게 두 가지로 분별할 수 있었다. 하나는 동일 권위 관념을 공유하는 ‘국제사회’였다. 이러한 국제관계 속에서는 국가는 유아독존하기보다는 서로 형제자매 국가인 듯 행동했다. 또 이러한 국제관계는 계층적이며 서열적인 정치 관계에서 이루어지며, 주권 사상과 같은 정치 신화는 자리 잡을 수 없었다.⁸⁷⁾

다른 하나는 권위 관념이 서로 다른 나라 사이의 국제관계였다. 미국 진영과 소련 진영 사이의 갈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이때의 권위는 선동, 모략과 술책, 음모의 기구이며 최후의 우열은 강제력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었다. 국제정치학에서 ‘권력정치’에 주목하는 현실주의는 바로 이 지점에만 주목하는 반쪽 짜리 이론이었다.⁸⁸⁾

흥미로운 관찰은 일류급의 군사력을 갖지 못한 나라들이 힘의 통합이 없으면 나라가 유지되지 못한다는 절실한 요구에서 초강대국과의 군사적 협조를 피하게 되고 이러한 군사적 협조는 오늘날의 병기생산에 따라 생산 협조, 또 따라서 재정, 경제에서의 전면적 협조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이었다. 즉 현재의 생활 정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오늘날의 전쟁 위협에 대처하여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가 ‘내’ 나라주의적 정치의 마(魔)로 하여금 지역적 통합에의 길로 서서히 발을 옮기게 했다.

양 진영의 사람은 어언간 나라 의식 밖에 진영 의식에 몰들기 시작하였고 또 같이 싸우고 자원을 서로 바꾸어 이용하고 서로 돕는 동안에 모르는 사이에 ‘내’ 나라 의식 그리고 ‘내’ 겨레만이 제일이라는 전투적 민족의식이 바뀌어 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전쟁의 위협이 전쟁을 일으키는 커다란 원인을 아주 서서히나마

86) 이용희, 위의 책, 119쪽.

87) 이용희, 위의 책, 262~263쪽.

88) 이용희, 위의 책, 265쪽.

치우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 같이 보인다. 묘하게도 전쟁이 전쟁을 없애는 길로 걸어가는 듯이 보인다는 말이다.⁸⁹⁾

4. 나가며

지금까지 조효원과 이용희의 국제정치학 저서에 나타난 냉전 국제정치론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한국 국제정치학사에서 1950년대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 시기는 일본적 지식 체계의 잔재(殘在)로 설명되거나, 미국 국제정치학의 착실한 수입기로 정리되어 왔을 따름이다. 이 글에서 살펴본 조효원과 이용희를 다루는 글들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지금까지 이는 유학과와 국내파라는 매우 단순한 구도로 접근되어 왔다.⁹⁰⁾

지식 체계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 국제정치학의 역사는 제국 일본 시기 축적되어 온 일본/유럽의 지식 체계인 외교사, 국제법, 지정학 지식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발전된 ‘국제정치학’(International Politics)의 ‘물리적’ 결합 속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 체계의 기원을 따지면서 ‘한국적 국제정치학’을 찾기 위해 지식의 기원을 찾아 들어가면 갈수록 오히려 지식의 지구적 순환을 발견하는 아포리아(aporia)가 발생한다. 이 글은 그런 의미에서 조효원과 이용희의 지식 체계의 기원을 따지기보다는 ‘국제정치학’이라는 새로운 지식 체계의 번역과 수용을 통해 무엇을 분석하고 싶어했는가를 문제의식으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조효원의 『국제정치학』과 『아세아정치론』에서 분석된 냉전 국제정치는 여러 국가의 적나라한 세력 경쟁이 이루어지는 ‘힘’의 장이었다. 조효원은 이를 보편적인 세계 대세로서 수용하면서, 국력 면에서 약소국일 수밖에 없는 한국의 외교 전략을 담아내고자 했다. 조효원은 국력의 증강을 자체적으로

89) 이용희, 『영구평화론』(1957), 『동주 이용희 전집 6: 독시제산고』, 연암서가, 2017, 227~228쪽.

90) 이와 같은 관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박상섭, 『한국 국제정치학 40년: 현황, 방향 및 가능성』, 『한국정치학회보』 21권 2호, 한국정치학회, 1987.

이루기 어려운 한국과 같은 약소국의 경우, 자유 진영의 간섭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아시아의 반공 국가들을 엮어내면서 한국이 그 지역 내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냉전에 대처하고자 했다.

동시에 조효원은 아시아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아시아 국가들의 중립 노선을 비판했다. 이는 단순히 미국 국제정치학의 번역을 넘어서 조효원 자신의 정세 분석을 미국 국제정치학 이론을 통해 피력한 것이라 볼 수 있었다.⁹¹⁾ 조효원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국제정치 질서를 일종의 양 진영의 세력균형에 입각한 대결 구도로 파악했고, 이 구조를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한국이라는 약소국의 길을 모색했다.

이용희에게도 국제정치는 반이들일 수 밖에 없는 일종의 구조였다. 그러나 이용희에게 국제정치는 보편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유럽 세계의 팽창을 통해 ‘일반화된’ 현상이었다. 더 중요했던 점은 국제정치의 일반화 속에서 국제정치를 경험하는 주체가 ‘내’ 나라라는 사실이었다. 국제정치학은 ‘내’ 나라의 시각에서 출발해야 했다.

또 냉전은 단순히 5, 6개의 강대국이 단 두 개로 줄어들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는 근대국가 간의 이룩된 국제정치 질서가 바뀌어 가는 것을 의미했으며, 근대 국제정치의 초석이었던 주권국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진영별 통합의 필요에 따라 실질적으로 제한받는 상황을 뜻했다.⁹²⁾ 현대 전쟁의 규모와 성격은 이제 전통적인 근대국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되었다. 이제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을 다른 국가들이 실력으로 능가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다.⁹³⁾

그런 의미에서 이용희가 보기에 나라 간의 권력 투쟁만을 강조하는 ‘현실주의’ 시각은 충분히 현실적이지 못 했고, 오히려 비현실론에 가까웠다. 한국

91) 당대에도 조효원의 책을 일종의 ‘표절’로 지적하고 있는 기사가 있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그(조효원)가 관부 학자인 것은 문제로 삼을 것도 없고 씨의 저서인 『아세아정치론』이나 『국제정치학』은 모두가 다 미국의 저명한 학자 로-젠거, 모-겐소, 슈-만 씨 등의 저서를 슬쩍한 것이라고 하니...” 『기자석』, 『경향신문』, 1955년 8월 6일, 1면.

92) 이용희, 『동주 이용희 전집 1: 국제정치원론』, 369쪽.

93) 이용희, 위의 책, 370쪽.

을 포함한 약소국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양 진영 간의 권력 투쟁이 아니라 양 진영이 형성되면서 기존의 국제정치 문법 자체가 변모하는 양상을 잘 읽어내고, 그 안에서 한국의 주체적 시야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당대의 관점에서 국제정치학은 ‘국제정치’라는 새로운 현상을 읽어내려는 신학문이었다. 조효원과 이용희 역시 국제정치학을 활용해서 냉전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해석하려 했으며 저서를 통해 냉전 국제정치론을 세세하게 피력했다.

즉 조효원과 이용희로 대표되는 1950년대 한국 국제정치학은 미국 국제정치학, 특히 한스 모겐소로 대표되는 미국식 현실주의의 일방적 이식(移植)이 아니라, 해방 이후 약 10년 간 경험한 냉전에 대한 그들 자신의 해석을 담았다. 두 학자 모두 그들 자신이 서 있는 한국이라는 장소와 현실을 의식하면서 그들 나름의 ‘장소의 논리’를 전개했다. 현실을 해석하는 조효원과 이용희의 두 관점이 한국 국제정치학계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또 대립각을 세우는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면을 통해 논하도록 하겠다.⁹⁴⁾

94) 1955년 이용희와 조효원 간에 진행된 38선 획정 논쟁은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두 학자 간의 입장차를 보여주는 학술 논쟁이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강동국, 『국제정치학자 이용희의 탄생』, 『한국 국제정치학, 미래 백 년의 설계』(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엮음),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김용구, 『국제정치학사』, 『한국정치학회 50년사: 1953~2003』(한국정치학회 엮음), 한국정치학회, 2003.

민병원·조인수 엮음, 『장소와 의미: 동주 이용희의 학문과 사상』, 연암서가, 2017.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엮음, 『한국 국제정치학, 미래 백 년의 설계』,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이용희, 『동주 이용희 전집 1: 국제정치원론』, 연암서가, 2017[1955].

_____, 『동주 이용희 전집 6: 독시재산고』, 연암서가, 2017.

조효원, 『국제정치학』, 문종각, 1954.

_____, 『아세아정치론』, 문종각, 1955.

하용출 엮음, 『한국 국제정치학의 발전과 전망』,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50년사』, 한국국제정치학회, 2006.

홍정완, 『한국 사회과학의 기원: 이데올로기와 근대화의 이론 체계』, 역사비평사, 2021.

Lawrence K. Rosinger et al., *The State of Asia: A Contemporary Survey*, Alfred A. Knopf, 1951.

Hans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Alfred A. Knopf, 1954.

2. 논문

기유정, 『해방 후 한국의 '지역학'과 제국의 학설: 이용희의 '권역'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8권
 2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9.

김영명, 『한국적 국제정치 연구의 주요 사례와 비람직한 방향』, 『글로벌정치연구』 2권 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09.

남기정, 『이용희의 냉전 인식: 냉전과 분단 기원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20호,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17.

박상섭, 『한국 국제정치학 40년: 현황, 방향 및 가능성』, 『한국정치학회보』 21권 2호, 한국정치학회보, 1987.

손제석, 『국제정치학의 연구 및 대학교육경향』, 『한국정치학회보』 2권, 한국정치학회, 1967.

이철순, 『"한국적 (국제)정치학" 정립을 위한 담론 비평』, 『21세기 정치학회보』, 22권 3호, 21세기정치학회,
 2012.

Jungmin Seo and Young Chul Cho, "The emergence and evolu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in postcolonial South Korea,"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0, 2021, pp. 1-18.

‘Realistic’ Visions of the Cold War

–Hyowon Cho and Yonghee Lee’s Frame on the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 Cold War–

OK Chang Joon*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of Hyowon Cho and Yonghee Lee, the earl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tists in Korea. Until now, Cho has been regarded as ‘American-centric’ and Lee as ‘Korean-centric’. This article interprets that both scholars captured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 the advent of the Cold War, through a new knowledge system called ‘International Politics’. Both tried to explain Korea’s international political reality while actively utilizing international political knowledge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A large body of prior work primarily focused on how to make more ‘Korean-centric’ international politics. They were inclined to trace the origin of knowledge, are likely to fall into a fundamentalist obsession that the origin of knowledge should be derived from a unique Korean experience. Unlike the existing approach, this article attempted to approach the discussion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more dynamically by paying more attention to the aspect of knowledge utilization.

Key words : Cold War, International Politics, Hist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Hyowon Cho, Yonghee Lee

논문투고일 : 2021년 10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11월 17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11월 22일

* Seoul National University Ph. D. Candidate